

## 창업준비성이 창업초기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준비기간의 조절효과 중심

오재우(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이동형(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강진규(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국 문 요 약

최근 우리나라는 창업과 관련된 육성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 우선시 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창업연구는 극히 부족하며 제한적인 실정이다. 연구 내용도 창업자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결과도 명확히 검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주제와 다르게 창업자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창업 준비 수준의 변수를 중심으로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이의 관계에 정부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첫째, 창업 준비성과 재무적성과 사이의 관계, 둘째, 창업 준비성과 비재무적성과 사이의 관계, 셋째,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이의 창업 준비 기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창업 지원 정책제언을 통해 창업실패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창업진흥원의 실태조사 자료 중 업력이 5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 400개를 선정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 SPSS 1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자료의 특성 정리를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시행하였고 가설 검증을 위하여 창업 준비성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는 창업교육시간, 창업수혜금액, 배태조직경력을 독립변수로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창업 준비기간을 조절변수로 선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창업수혜금액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창업교육시간과 배태조직경력이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창업교육시간은 정(+)의 영향을 배태조직경력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재무적 성과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창업 준비기간의 상호작용은 창업수혜금액과 비재무적성과 사이에서만 정(+)의 영향이 있고, 창업교육시간, 배태조직경력과 비재무적성과와 재무적 성과 사이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취업난 해소를 위한 창업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창업초기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창업 준비성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창업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과 운용에 있어 양적인 증가보다는 개별 지원 사업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청년 예비 CEO들에게는 창업이 우선인지 아니면 창업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우선인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핵심주제어 : 창업 준비성, 창업초기기업, 창업 준비기간, 창업교육시간, 배태조직경력, 창업수혜금액

## 1. 서론

현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구직난 해소 및 취업률 향상과 경제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창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창업은 국가경제의 주요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Emenike(2013)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창업이 경제성장의 둔화 및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목 받아왔으며, 경제위기와 경제성장을 둔화하는 시기는 우수한 벤처 창업 기업들이 새로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신규시장과 고용창출 등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국내의 창업현황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언급 할 정도로 국가 전체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며, 2013년에 출범한 현 정부의 핵심정책 공약인 창조경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창업에 집중하고, 또한 창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창업과 관련된 지원 및 육성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우선시 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내 창업연구는 극히 부족하고 제한적인 실정이다.

\* 제1저자, 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sbaby69@naver.com

\*\* 공동저자, 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leedh@hanbat.ac.kr

\*\*\* 교신저자, 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jkkang@hanbat.ac.kr

· 투고일: 2015-05-19 · 수정일: 2015-06-22 · 게재확정일: 2015-08-04

현재까지 창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창업자의 개인적인 특성, 또는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중심으로 창업초기기업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결과로는 창업자의 특성이 창업초기기업의 성공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해외연구에서도 창업자의 교육수준과 기업운영 방법 및 업종(Cressy, 1994; Fairlie & Robb, 2009),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통제 의 위치 (Sexton & Rowman, 1985), 성공경험(Roure & Keeley, 1990) 등 창업자의 특성이나 사업체 특성을 중심으로 창업의 성공요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공적인 창업초기기업은 창업자의 특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창업자의 나이, 성향, 학력, 경험, 사회적 신분, 특정 욕구 등이 창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최근 창업에 관한 연구의 흐름은 기존의 창업가의 특성 중심의 연구에서 치밀히 계획된 행동과 의도를 통하여 창업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는 Ajzen의 계획적행동론에 의한 창업연구로 이동되고 있다(Han, 2012). 계획적행동론의 이론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 이와 같은 연구는 기업가적 결정의 의도적, 기대 중심적, 상황적 성질을 강조함으로 기업가정신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심의 결정론적 접근을 보완하고 있다(Han, 2012).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창업성공의 핵심요인을 특성이나 기질 등 창업자의 특성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창업이전에 창업자의 창업 준비성의 임의론적 변수들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창업가는 타고난 존재가 아니라, 계획과 준비를 통해 성공을 만들어가는 존재’ 라는 사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창업자의 특성에서 벗어나 창업 준비단계에서 나타나는 창업 준비수준이 창업자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수 중심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결정론적 접근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이의 관계에서 정부지원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창업의 상황론적 접근(contingency perspective)을 병행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3가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 준비성과 비재무적성과 간의 관계, 둘째 창업 준비성과 재무적성과 간의 관계, 셋째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밝힘으로 창업은 ‘타고난 창업자’로 인해 결정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준비와 도전’을 통해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여 창업 준비성 제고가 창업실패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본 연구는 창업 준비성이 창업초기기업의 경영성과 또는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창업 준비성의 하위요인은 창업교육시간, 창업수혜금액, 배태 조직경력을, 경영성과의 하위요인으로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과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하여 창업 준비성의 하위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창업 준비성의 요인 중 하나인 창업 준비기간을 조절변수로 선정하여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였다.

### 2.1 창업초기기업의 개념

창업의 정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에 의하면 Cooper & Bruno(1977)는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과학자 또는 엔지니어가 설립하여 R&D 중심으로 신기술 개발과 활용에 중점을 맞추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Vesper(1980)는 “자원, 재료, 노동 그리고 자산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켜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질서를 수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Dollinger(1995)은 “위험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높은 성장과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혁신적, 경제적 조직체를 형성 시키는 것”으로, Timmons(2000)는 “하나의 조직을 창조하는 개념”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며, Park(2010)의 연구에서는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벤처기업으로 많은 위험이 따르는 반면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기술기반의 창업기업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신기술 창업기업 혁신형 기업 등을 포괄하는 신생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Choi, 2012).

본 연구에서 창업초기기업은 창업진흥원에서 정의한 연구기반 기술창업기업과 사업기반 기술창업기업 중에서 사업기반 기술창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 2.2 창업준비성의 개념과 구성

#### 2.2.1 창업준비성의 개념

창업이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기회 선택 및 보유능력 활용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성공적인 창업의 요소로는 창업 자원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Nam, et al. (2013)은 자신의 연구에서 창업 준비를 ‘업종선정’, ‘기술 확보’, ‘인력 확보’, ‘사업장 위치선정’, ‘자본금 확보’에 대한 준비정도를 중심으로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철저한 창업 준비는 창업시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Stuart, Abetti (1987)의 연구에서는 창업경험이 기업의 성과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는 창업 전 업종과 현 업종의 동일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Bates, 1990; Cressy, 1994), 창업경험과 교육수준은 창업성공의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는 연구 등 창업

경험 및 창업 전후의 업종 유사성과 같이 창업과 관련된 창업자의 준비수준이 창업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창업에 필요한 자원인 기술, 사업아이템, 인력,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은 창업자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중요한 과정으로 창업 준비는 창업자의 시간투자 정도와 노력에 비례한다. 지금까지 창업을 위하여 창업자의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창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사업의 핵심인 사업계획 외에도 창업을 위한 행정적, 법률, 제도, 자금의 조달, 목표시장의 설정, 외부지원 사업 참여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창업자들이 창업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여러 활동 중에서 어떤 활동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하여 다방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기존연구에서 창업 준비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업 준비성 측정하는 요인을 창업교육시간, 배태조직경력, 창업수혜금액으로 측정요인으로 선정하여 탐색적 분석을 시도를 하였다.

## 2.2.2 창업준비성의 구성

### 2.2.2.1 창업교육시간

창업은 보유자원과 경험이 모두 부족하므로 금전적 지원과 컨설팅 등 창업교육을 필요로 한다. 성공창업을 위하여 창업자의 역량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창업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육기회 또한 확대하여 활성화 되고 있다. 창업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창업교육은 창업 성공사례에서 동기를 유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결단력 있는 행동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창업의 성공은 창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실 위주 교육 접근방식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Ronstadt, 1985). Vesper, McMullan(1988)는 창업을 위한 창업 교육 과정은 안정된 기업성장과 관련된 사업지식, 창업지식, 창업기회 관련 특정지식, 창업관련 특정지식 4가지에 대한 교육과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며 교육 방향에 관하여 주장하였으며, Anjan(2005)은 하버드 대학과 스텐포드 대학에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수의 졸업생이 창업에 성공하는 경험적 사례를 통하여 창업의지와 성공은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가르쳐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창업 교육의 유용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Cho(1996)는 창업이 우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문제에 대한 지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으로 창업기회를 탐색하고 창업자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창업교육이 필요하며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Choi(2012)은 2004년 대학원 정규과정에 창업 강의를 개설한 이후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만족도 및 성과는 매우 부족하다는 창업교육 성과에 관하여 주장하였으며, Han(2012)은 창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의 부족하며, 경영 이론 중심의 강의형태로

인해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며 특히, 기술창업은 전문가나 교육시스템의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Jung(2012)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창업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창업교육을 이수시킨 결과 사업생존율이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창업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면서 창업자들에게 체계적인 창업교육은 꼭 필요하며 창업교육의 긍정적 성과를 강조하였다. Lee, Whang(2010)의 연구에서는 단기간의 창업교육이라도 교육을 받은 횟수에 따라 예비창업자의 성취 욕구 모호성의 수용 및 창의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Jung(2014)는 국내 창업 교육은 아직까지 이론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예비창업자 및 기존 창업자들로 하여금 흥미 유발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성과에 대한 기대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창업교육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의 창업교육시간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창업교육시간 정도가 경영성과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시간을 창업자가 창업교육에 참여한 교육시간의 합으로 정의하고 창업교육시간이 창업초기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 2.2.2.2 창업수혜금액

우리나라는 정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나 지자체 또는 대기업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기술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술창업자는 우수한 사업Idea만 가지고서도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창조경제 창업플랫폼 지원 사업이 온오프 라인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Idea Platform인 중기청의 무한상상 국민 창업프로젝트,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타운, 삼성의 대구 창조경제단지 건립계획 및 세간에 공개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나 LG의 Idea 공모 등 창업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창업 지원 시스템의 수준이 단순 융자사업인 수혜적 자금지원 중심에서 창업활성화를 위해 Idea의 구상에서 사업화 나아가 수익배분까지 지원하는 창업 지원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 발전하였다. 최근의 다양한 창업지원 환경들은 창업자가 올바른 정보를 획득한다는 전제하에서 창업의 꿈을 펼치는데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추세에 따라 창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 자금을 대한 상환부담을 없애거나 대폭 경감시킨 형태의 출연사업이 매년 활성화되고 있다.

KOSBI(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기청은 창업초기기업 자금지원 사업에 1.2조원을,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1.2천억 원 등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연고로 기술창업자들은 과거와 같이 단순한 정책 자금 대출을 수혜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정보 획득 경로를 활용하여 창업지원 사업에 접근하고 있어 날이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Shin(2013)은 창업컨설팅 그리고 커뮤니티 지원 등의 창업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을 경우 창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며,

더 나아가 창업성과를 도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Kim(2008)은 생존분석을 통해 정부지원 사업의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 간 생존율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창출에는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면 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성이 낮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Lee et al.(2013)은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 무분별한 창업지원 사업 편성에 따른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각 부처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내실 있는 창업지원의 운용을 요구하고도 있으며, Lee, Park (2011)은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선정 단계부터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이는 양이 아닌 질적 수준으로 정책 방향 전환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창업 지원사업의 수혜 경험여부는 창업자의 안착을 위한 필요조건은 아닐지 몰라도 유용한 지원 수단 중의 하나이며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았다는 것은 중국적으로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어 계량화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개인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정부에서 지원받은 창업수혜금액의 합으로 정의하고 창업수혜금액이 창업초기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 2.2.2.3 배태조직경력

동업종 경력이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선행연구 분석결과 Cressy(1994)는 창업초기기업인 경우 동업종 종사경력이 있는 기업이 여타 기업에 비해 생존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으며, Quinones et al.(1995)는 직무경험의 정의를 특정 직업에서 보낸 시간이나 특정업무에서 수행한 시간으로 정의하고, 직무경험의 양과 직무성과 사이에는 강한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Bird(1993)는 업종 경험을 창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전 업종 경험을 이해하고 그 업종의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Nam et al.(2013)은 창업경험 및 창업전후의 업종 유사성과 같이 창업과 관련된 창업자의 자발적 준비 수준은 창업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고, Kang, Ha(2012)는 동업종 근무경험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신감을 높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현대를 살아가면서 타인의 경험을 교육이나 교류활동 또는 책 등 여러 정보 입수 경로를 통해 간접 체험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체화된 경험과는 구분된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기업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외도 있겠지만 국가 전체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창업자라는 화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동업종 종사기간은 최소한 창업자 본인의 경력이나 직무경험의 관련성을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검증의 필요성을 갖고 있다. Greenhaus et al.(2009)은 경력관리 측면에서 경력이란 한 개인이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경험의 일정한 유형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Yoon(2004)의 연구에서는 사업지향 경력 지향성을 가진 집단들은 창업의지가 높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창업자 경험에 의한 기회 유사성과 능력의 차이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한 바에 의하면, 배태조직에서의 경험과 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사업유사성, 직무경험경력, 관리자 경험, 창업경험과 창업성과 사이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 선행연구들은 경력을 경력지향성, 배태조직경험 등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경력을 동업종경력과 타 업종경력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은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동업종경력이 기업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검증 필요성이 갖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배태조직경력을 창업자가 창업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과거에 근무한 경력기간의 합으로 정의하고 배태조직경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 2.3 경영성과의 개념과 구성

### 2.3.1 경영성과의 개념

모든 기업은 조직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의 목표 달성 여부는 성과로서 표현될 수 있다.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경영성과는 조직의 목표달성도,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획득을 위한 환경의 개척능력,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생존능력, 인적자원 개발과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능력, 기업의 생산성 또는 수익성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Choi, 2006)

기업에서 성과는 생산성, 품질, 적시성, 대응성, 효과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경쟁자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고객을 만족시켜서 조직이 성취한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써 성과는 효율성과 효과성에 의해서 결정된다(Kim, 1990). 성과의 측정은 항상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만족과 밀접하거나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거의 반세기동안 학자들과 경영자들 사이에서 주된 관심사였다. 성과기준은 경영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알기 위한 척도이며, 경영목표의 달성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를 정의하여 측정 하는 것은 성과향상의 기본단계이므로 성과측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 2.3.2 경영성과의 구성

#### 2.3.2.1 재무적 성과

재무적 성과 측정을 기반으로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것들이 기업의 핵심 역량 향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측정하는 지표는 투자수익률, 경제적 부가가치, 수익성, 영업이익,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자본회전율, 현금흐름 등이 대표적인 측정지표이다. 기업은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재무비율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미래 기업의 수익과 가치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고 회계기준에 의해 회계수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 최근에는 자본과 부채를 합친 총비용을 고려하여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에 중

점을 둔 EVA에 의한 평가가 증가하고 있다(Jeong, 2001). 재무적 성과 지표들은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다른 관점과 관련된 성과지표들을 이용해서 실행한 전략들이 얼마나 향상된 결과를 낳는지 알려준다. 창업초기기업은 초기에서는 자금을 가지고 있으나 시제품 생산, 설비 구축, 마케팅 채널 구축 등으로 옮겨 갈수록 재무자원에 한계를 갖게 되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표를 통한 성과측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성과의 측정변수로 매출액을 측정하여 활용하였다.

### 2.3.2.2 비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는 아직까지 측정에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비재무적 성과는 일반적으로 조직과 관련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재무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Yoo(2010)는 최근 3년간 특허출원 건수, 기술개발결과보고서, 논문발표, 공인된 수상경력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Kim(2014)은 출원한 특허보다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유효성이 훨씬 큰 등록특허를 비재무적성가로 정의하고 있다. Zhu(2013)는 기술력 및 기술관리 역량, 생산지원 및 마케팅 역량 R&D역량, 신제품 개발능력 등이 비재무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비재무적성과는 시장정보와 함께 재무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Lee, Kim & Lim (2012)은 특허활동은 특허등록과 제품생산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비재무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나 재무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제품성과를 거쳐 간접적으로 재무적성과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비재무적성과와 재무적성과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인하였다.

그렇다면 설립 2~3년차가 대부분인 창업초기기업인 본 연구에서 비재무적 성과의 측정변인으로 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권(해외포함) 전체로 하였으며 등록 보유중 이거나 출원 중인 각종 산업·지식 재산권 보유한 개수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 2.4 창업준비기간 개념

Nam, Chun & Park(2013)은 “물적 인적자원에 대한 창업 준비는 창업자의 투자시간과 노력에 비례하고, 이 준비가 부족하면 창업자의 통제력 부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창업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학습과 노력 준비에서 시작되며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창업 준비가 가지는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Kim, Chang(2013)은 창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회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도출하며 계획의 실행과 이를 모니터 하고 수정하는 등의 행동들이 필요하다며 이런 행동을 “예비창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Lee, Park(2011)은 실패한 기업들이 자금부족, 기술경쟁력, 사업아이템, 경영마인드 및 경험부족 등을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창업기획력의 부재를 간과하고 있으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기획 단계부터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창업 기획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창업준비기간이란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가 사업을 구상하고 실제 창업하기까지 객관적으로 투입한 시간의 기간을 의미하지만, 이 기간 안에는 창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각종 자료수집 · 조사연구 · R&D · 동업계분석 · 창업교육 · 정부나 창업지원 기관의 지원 사업 응모나 참여 등 자발적이던 수동적이던 창업을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단순히 준비기간이 길다고 창업의 좋은 성과를 단정할 수 없으며, 창업자에 따라 창업 준비기간은 천차만별로 일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에서 창업 준비기간이 수렴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준비기간을 창업자가 창업을 구상하고 실제 기업을 설립(개업)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소요된 기간의 합으로 정의하고 창업 준비기간의 정도에 따라 경영성과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 2.5 창업준비성과 경영성과간의 관계

창업 준비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창업 준비성의 측정요인인 창업교육시간, 창업수혜금액, 배대 조직경력과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2.5.1 창업교육시간과 경영성과간의 관계

창업교육과 기업성과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데, Yu, Yang(2008)는 창업교육 참가자의 경력지향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창업교육 참가여부를 매개로 하여 창업의지의 고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Cho, Kim(2010)의 연구에서 정부나 대학에서 지원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경영성과인 매출액과 순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창업교육, 경영상담을 받은 기업은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순이익, 매출액 평균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eon(2012), Jung(2012), Lee, Whang(2010)은 단기간의 창업교육 또는 일회성 교육보다는 교육횟수가 많거나 체계화된 장기 창업교육이 성과가 좋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Park et al.(2010)는 우리나라 창업교육의 현실이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제외하고 지자체나 창업 유관기관들은 대부분 충분한 교육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단기간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교육 참여자들이 높은 교육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실상을 지적하고 있다.

### 2.5.2 창업수혜금액과 경영성과간의 관계

창업지원사업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효성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찬반 논란 또한 상당하다. 구체적으로 Lee et al., (2013)들은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 무분별한 창업지원 사업 편성과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각 부처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내실 있는 창업지원”의 운용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Kim(2008)은 “생존분석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 간 생존율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창출에도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면 전체적으로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성이 낮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Lee, Park(2011)은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선정 단계부터 성공가능성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이는 양이 아닌 질적 수준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창업지원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의 변경을 주문하고 있기도 했다. Kim, Park(2013)는 사회적 기업 창업성과 영향요인 연구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경영역량 그리고 조직문화를 변수로 정부지원정책활용도를 조절변수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지원정책의 활용도가 모든 변수에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Kim(2013)은 창업투자보조금 사업의 지원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투자보조금을 변수로 고용성장율,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영업이익율, 수출비중 등 5건의 지원성과를 비수혜 기업군과 대비하여 검증한 결과 고용성장, 매출액증가, 영업이익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검증하였으며,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문제점이나 지원대상의 완화부분 보조금 인정 범위의 확대 지급방식의 완화 등 제도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2.5.3 배태조직경력과 경영성과간의 관계

Quinoes et al.(1995)는 직무경험과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직무경험은 특정 직업 또는 특정업무에서 수행한 시간으로 정의하였고, 직무경험의 양과 직무성과 사이에 강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직무경험을 직무수준경험과 조직관리 경험으로 구분하여 직무수준경험은 성과에 강한 정(+)의 관계가 반면에 조직관리 경험은 성과에 약한 정(+)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문헌조사 결과 기존 연구들이 시간으로 경험을 측정하고 있으나 이는 취약한 지표로서 보다 향상된 자료로 복잡하고 다양한 직무경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직무수준경험 측정을 통하여 직무의 질이나 특정한 경험을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Yoon(2004)는 벤처기업 초기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사업유사성과 창업자의 능력, 연구개발 및 인력을 변수로 노동생산성을 분석하여 창업자의 배태조직 경험이 유사성과와 결합할 때 관계역량이 발휘되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배태조직 경험이 창업 창업초기기업의 성과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연구결과를 밝혔다. An et al.(2009)은 창업 CEO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이전 근무년한 · 근무직장수 · 대기업 근무경험 · 미디어노출을 변수로 제휴형성에 관한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가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근무 경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모든 변수가 정(+)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창업이전 근무연한이 길수록 경험역량이 축적되고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은 결과적으로 신뢰도를 향상 시킨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

이에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 창업 준비성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창업교육 시간은 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창업수혜금액은 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배태조직경력은 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창업교육시간은 비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창업수혜금액은 비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6. 배태조직경력은 비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5.4 창업 준비기간의 조절효과 관계

창업 준비기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Davidsson(2003)은 창업과정을 일반적으로 창업 아이디어의 발견과 개발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두 개념을 구체화하여 발견은 창업아이디어의 초기 개념으로 개발은 새로운 창업아이디어의 실행 및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Farmer et al., 2011). Sequeira et al.(2007)은 예비창업활동의 중요성을 생기업의 탄생을 위해서는 창업의도와 초기 창업가 행동들로 구성되는 잉태기간이 필요하며, 그 결과 신생기업이 출현하거나 또는 창업이 포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 Sung(2013)는 창업을 위해서는 기회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도출하며 계획을 실행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수정하는 등의 행동들을 “예비창업활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Lee, Park(2011)은 “실패한 기업들은 자금부족 기술경쟁력 아이템 경영마인드 및 경험부족 등을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창업기획 단계부터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준비 단계부터 기획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Kang, Ha(2012)는 창업 준비기간을 “사업구상에서 개업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 체계적인 준비는 사업 성공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히고 있다.

Kang, Ha(2012)는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창업자특성과 심리적 특성 사이에 창업 준비과정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배태조직과 창업 준비기간은 재무적성과에는 무의미하지만 두 변수가 매개변수인 자기 효능감에는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이에 창업 준비기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2.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H2-1. 창업교육시간과 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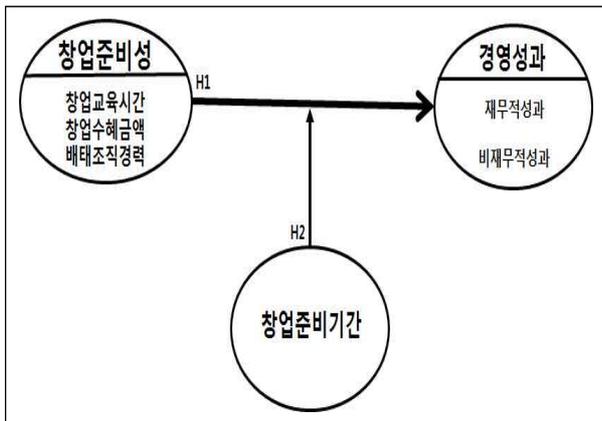
*H2-2. 창업수혜금액과 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H2-3. 배태조직경력과 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H2-4. 창업교육 시간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H2-5. 창업지원 수혜금액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H2-6. 배태조직경력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III. 실증 연구

#### 3.1 연구모형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들은 창업을 준비하는 방법 역시 창업자 개인의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경험수준, 경력정도, 성장배경,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창업자의 창업 준비성 정도가 경영성과인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창업 준비기간이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이에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모형

#### 3.2 연구표본 및 측정지표

##### 3.2.1 연구표본

연구대상은 2009년에서 2011년도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창업지원을 받은 4,4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에 참여한 3,408개 기업에 관한 결과 자료 중 연구목적에 적합한 자료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400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표본 추출의 기준은 첫째, 정부의 창업지원 기관 또는 지자체를 통하여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또는 아이디어상업화 사업 등 창업관련 지원받은 기업. 둘째, 업력이 5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 셋째, 창업 준비기간이 60개월 이하인 기업. 넷째, 기술보증기금과 거래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기업의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 다섯째, 본 연구에 사용할 측정항목에 특이값 또는 누락된 값이 있는 기업은 제외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처리를 위해 SPSS 18.0을 이용하였

다.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자료의 특성을 정리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실시 및 가설검증을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연구표본 총괄표

구분	표본 수	점유비(%)	
연령별	20대 (20세~29세)	10	2.50%
	30대 (30세~39세)	117	29.25%
	40대 (40세~49세)	200	50.00%
	50대 (50세~59세)	73	18.25%
	소 계	400	100.00%
학력별	고 졸	17	4.25%
	전문대졸	29	7.25%
	대 졸	229	57.25%
	석 사	86	21.50%
	박 사	39	9.75%
	소 계	400	100.00%
업력별	24개월 이하	72	18.00%
	25 ~ 36개월 이하	187	46.75%
	37 ~ 48개월 이하	120	30.00%
	49 ~ 60개월 이하	21	5.25%
	소 계	400	100.00%
배태조직 근무유무	없음	84	21.00%
	있음	316	79.00%
	소 계	400	100.00%
지원사업 수혜여부	없음	91	22.75%
	있음	309	77.25%
	소 계	400	100%
창업교육 이수유무	없음	210	52.50%
	있음	190	47.50%
	소 계	400	100.00%

\* 창업기업 정밀실태조사(2012) 자료 재처리

##### 3.2.2 측정지표

수집된 자료의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창업 준비성의 측정변인은 동일하게 6개의 척도로 분류하였으며, 매출액은 Log값을 취하여 분산을 최소화 하였다.

<표 2> 측정지표

분류	내용	측정	척도
창업준비성	창업교육시간	시간	1 ~ 6
	창업수혜금액	만원	1 ~ 6
	배태조직경력	개월	1 ~ 6
경영성과	재무적성과	만원	Log
	비재무적성과	건	건
창업준비기간		개월	1 ~ 6
인구통계학적 설문		업력, 자본금, 학력, 연령, 성별, 연령, 학력 등	

## IV. 실증 분석

### 4.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표본의 특징을 살펴보면 창업자의 평균연령은 42.62세 정도로 40대가 가장 많으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229명(57.25%)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초기기업의 업력은 평균 33.34개월로 창업한지 3년 이내 기업이 199개(64.75%)이며, 37개월 ~ 48개월 이하인 기업은 120개(30.00%)이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정도는 평균 4.2억 정도이며, 종업원 수는 평균 4.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준비성을 측정하는 변수인 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14.43개월이고, 창업수혜금액은 평균 5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으며, 배태조직경력은 평균 91.14개월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변수인 재무적 성과는 평균 매출액이 2억원정도이고, 기술적 성과인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는 평균 4.64건 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기술통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재무적성과(만원)	19,784.37	41,541.49	60.00	335,086.00
기술적 성과(건)	4.64	6.49	0.00	64.00
창업자 연령(세)	42.62	6.79	24.00	59.00
업력(개월)	33.34	8.94	18.00	54.00
종업원 수(명)	4.41	4.39	0.00	40.00
총자산(만원)	42,565.06	73,003.92	69.00	636,448.00
배태조직경력(개월)	91.14	85.41	0.00	377.00
창업준비기간(개월)	14.43	10.89	1.00	60.00
창업수혜금액(만원)	5,082.42	4,928.98	0.00	20,000.00
창업교육시간(시간)	27.38	42.81	0.00	200.00

\*; 표본 수(N) = 400

###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비재무적성과는 창업 준비기간, 창업교육시간 사이의 상관관계가 0.183(p < 0.05), 0.112(p < 0.10)로 비교적 낮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태조직경력 사이의 상관관계는 -0.152(p < 0.05)로 낮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창업수혜금액은 비재무적성과

와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무적성과는 창업 준비기간, 창업수혜금액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0.127(p < 0.10), 0.138(p < 0.05)로 비교적 낮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태조직경력과 창업교육시간은 재무적성과와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독립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창업 준비기간과 배태조직경력 사이에서 낮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고, 창업교육시간과 창업수혜금액은 0.218(p < 0.05)로 낮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창업교육시간, 창업수혜금액은 창업 준비기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배태조직경력과 창업교육시간, 창업수혜금액 사이의 상관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상관관계 분석

	창업준비기간	창업교육시간	배태조직경력	창업수혜금액	비재무적성과	재무적성과
창업준비기간	1					
창업교육시간	-0.025	1				
배태조직경력	-.113*	-0.012	1			
창업지원수혜	0.057	.218**	0.025	1		
비재무적성과	.183**	.112*	-.152**	0.097	1	
재무적성과	.127*	0.072	-0.029	.138**	.433**	1

\* : p<0.10, \*\* : p<0.05, \*\*\* : p<0.01

### 4.3 가설검증

#### 4.3.1 창업준비성과 재무적성과 사이 가설검증

창업 준비성인 창업교육시간, 창업수혜금액, 배태조직경력이 경영성과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표 5>와 같이 분석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4.3.1.1 인과관계 가설검증(가설 H1-1, H1-2, H1-3)

창업 준비성이 재무적성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5> Mode2의 회귀모형은 F 값이 p = .000에서 5.814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sup>2</sup> = .092로 9.2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창업 준비성의 창업교육시간, 배태조직경력은 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없으며, 창업수혜금액은 재무적성과에 영향(p < 0.05)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 준비성의 창업수혜금액은 재무적성과 향상에 정(+)의 영향이 있으나, 창업교육시간과 배태조직경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H1-1 “창업교육시간은 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1-3 “배태조직경력은 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이 되었고,

가설 H1-2 “창업수혜금액은 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표 5> 회귀분석 결과(재무적성과)

재무적 성과		Mode1	Mode2	Mode3	Mode4	VIF
통제 변수	상수	3.292	3.016	2.924	2.910	
	업력	-.080	-.072	-.063	-.066	1.111
	종업원 수	.183***	.173***	.185***	.186***	1.217
	총자산	.106*	.126**	.108**	.111**	1.307
독립 변수	창업교육 시간(A)		.055	.059	.061	1.073
	창업수혜 금액 (B)		.123**	.114**	.121**	1.103
	배태조직 경력 (C)		-.053	-.038	-.040	1.035
조절 변수	창업준비 기간 (C1)			.117**	.116**	1.080
상호 작용 효과	A x C1				.089	1.028
	B x C1				.025	1.030
	C x C1				-.007	1.069
R <sup>2</sup>		0.058***	0.092**	0.095**	0.103	
F (p-value)		8.189*** (0.000)	5.814*** (0.000)	5.861*** (0.000)	4.486*** (0.000)	

\* : p<0.10, \*\* : p<0.05, \*\*\* : p<0.01

#### 4.3.1.2 창업 준비기간의 상호작용효과 검증(가설 H2-1, H2-1, H2-3)

조절변수인 창업 준비기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5>의 Mode3과 같이 회귀모형 F 값이 p = .000에서 5.861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sup>2</sup> = .095(p < 0.05)로 9.5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창업 준비기간은 창업 준비성과 재무적성과 사이에 조절변수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준비성과 재무적성과 사이에 창업 준비기간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과 <표 5> Mode4와 같이 회귀모형 F 값이 p = .000에서 4.488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회귀식에 대한 R<sup>2</sup> = .103(p > 0.10)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 준비성과 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H2-1 "창업 준비기간과 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H2-2 "창업수혜금액과 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H2-3 "배태조직경력과 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모두 기각되었다.

#### 4.3.2 창업준비성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가설검증

창업 준비성인 창업교육시간, 창업수혜금액, 배태조직경력이 경영성과의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표 6>와 같이 분석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4.3.2.1 인과관계 가설검증(가설 H1-4, H1-5, H1-6)

창업 준비성이 비재무적성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6> Mode2의 회귀모형은 F 값이 p = .000에서 10.842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sup>2</sup> = .142로 14.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창업 준비성의 창업교육시간, 창업수혜금액은 비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p < 0.05)이 있으며, 배태조직경력은 비재무적성과에 부(-)의 영향(p < 0.05)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 준비성의 창업교육시간, 창업수혜금액은 비재무적성과 향상에 정(+)의 영향이 있으며, 배태조직경력은 비재무적성과 향상에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H1-4 “창업교육시간은 비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1-5 “창업수혜금액은 비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1-6 “배태조직경력은 비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모두 채택되었다.

<표 6> 회귀분석 결과(비재무적성과)

재무적 성과		Mode1	Mode2	Mode3	Mode4	VIF
통제 변수	상수	-3.762	-5.161	-6.440	-6.528	
	업력	.060	.051	.064	.058	1.111
	종업원 수	.226***	.218***	.236***	.235***	1.217
	총자산	.108**	.141***	.115**	.121**	1.307
독립 변수	창업교육 시간(A)		.102**	.108**	.122**	1.073
	창업수혜 금액 (B)		.090*	.078	.071	1.103
	배태조직 경력 (C)		-.167***	-.145***	-.149***	1.035
조절 변수	창업준비 기간 (C1)			.172**	.170***	1.080
상호 작용 효과	A x C1				.050	1.028
	B x C1				.116*	1.030
	C x C1				.014	1.069
R <sup>2</sup>		0.093***	0.142***	0.171***	0.186*	
F (p-value)		13.258*** (0.000)	10.842*** (0.000)	11.513*** (0.000)	8.895*** (0.000)	

\* : p<0.10, \*\* : p<0.05, \*\*\* : p<0.01

#### 4.3.2.2 창업준비기간의 상호작용효과 검증(가설 H2-4, H2-5, H2-6)

조절변수인 창업 준비기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6>의 Mode3과 같이 회귀모형 F 값이 p = .000에서 11.513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sup>2</sup> = .171(p > 0.01)로 17.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회귀분석 결과 창업 준비기간은 창업 준비성과 비재무적성과 사이에 조절변수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준비성과 비재무적성과 사이에 창업 준비기간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과 <표 6> Model4와 같이 회귀모형 F 값이  $p = .000$ 에서 8.895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186$ ( $p > 0.10$ )로 18.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시간, 배태조직경력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영향이 없으며, 창업수혜금액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정(+)의 영향( $P < 0.1$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H2-4 "창업교육시간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H2-6 "배태조직경력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창업 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 되었으며, 가설 H2-5 "창업수혜금액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창업지원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4.3.3 가설검증 결과**

가설검증 결과 창업 준비성이 경영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설을 종합한 결과 <표 7>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표 7> 가설검증 결과

가설	가설 내용	여부
H1	창업준비성은 경영성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H1-1	창업교육시간은 재무적성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2	창업수혜금액은 재무적성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3	배태조직경력은 재무적성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4	창업교육시간은 비재무적성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5	창업수혜금액은 비재무적성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6	배태조직경력은 비재무적성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	창업준비성과 경영성과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H2-1	창업교육시간과 재무적성과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H2-2	창업수혜금액과 재무적성과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H2-3	배태조직경력과 재무적성과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H2-4	창업교육시간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H2-5	창업수혜금액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H2-6	배태조직경력과 비재무적성과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V.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청년실업 및 고용률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창업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창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창업지원을 받은 창업초기기업들 중 400개의 표본기업을 추출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황론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의 창업지원 상황과 창업자의 창업준비성의 상호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창업자 특성 중심의 기존연구와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종속변수인 경영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과로 하였으며 창업 준비성을 창업교육시간, 창업수혜금액, 배태조직경력을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창업 준비기간을 조절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수립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의 창업교육시간은 재무적성파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으며(H1-1), 비재무적성파에는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H1-4).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ung(2012)은 창업교육여부 및 교육경험 횟수 모두 창업성공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성을 갖는다는 결과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시간이 재무적 성과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비재무적성파에는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창업교육은 비재무적성파에만 일반적인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창업자의 창업수혜금액은 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H1-2, H1-5). Kang, et al.(2012)은 선행연구에서 출원된 산업재산권의 수에 있어서 정(+)의 2014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연구 결과를 밝힌 것처럼 지원 사업의 유의성을 지지하는 연구(Kim, 2013; Kim, Park, 2013)와 비교집단과의 검증을 통해 유의성이 없다고 부인하는 연구(Ma, Jang, 2009)가 혼재되어 유효성 논란이 있는 실정이나, 본 연구는 전자의 입장을 견지하여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창업자의 배태조직경력은 재무적성파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으며(H1-3), 비재무적성파에는 통계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H1-6).

배태조직경력의 성과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정(+)의 유의성을 검증(An et al., 2009; Choi, 2010; Kang, Ha, 2012 등)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 검증결과는 의외로 재무적성파에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비재무적성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부(-)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창업 준비기간이 창업 준비성과 재무적성과 사이에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H2-1, H2-2, H2-3, H2-4, h2-6), 비재무적성파에는 창업 지원금액만 유의한 정(+)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H2-5). Kang, Ha(2012)는 창업성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배태조직과 창업 준비기간은 재무적 성과에는 무의미하지만 두 변수가 매개변수인 자기 효능감에는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연구결과를 밝힌 것과 같이 많은 선행연구들이 정(+)의 유의성을 검증(Nam et al., 2013; Kim, Hahn, 2010)하고 있는 것처럼 본 연구결과도 같은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 5.2 연구의 시사점

첫째, 배태조직경력이 많으면 경영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경영성과 중 비재무적성과가 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연구결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배태조직경력이 너무 오래되면 오히려 경영성과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동일업종에 오랜 근무 경력이 경영성과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의 연구표본 특성으로 일축해 볼 수 있지만 연구결과에 좀 더 분석해보면 창업자 평균연령이 40대 중반이고, 창업을 위해 창업 준비한 기간은 14개월 정도 이지만 배태조직경력은 91개월 정도로 배태조직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타성에 빠진 상태에서 창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태조직경력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창업교육시간이 비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은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에 관한 유용한 지원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링 또는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유사분야의 창업자들과 네트워크 형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공 등 유용한 창업정보 획득할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창업에 두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지원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검증결과는 정책의 수립과 운용에 있어 양적인 증가보다는 개별 지원 사업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창업교육의 유용성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창업교육의 유용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창업교육 현장의 실상을 지적하는 것과 같이 최소한 공공부문에서의 창업교육은 단순한 창업 스킬을 전달하고 교육 실적을 집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창업 준비단계를 중점으로 창업초기기업의 창업 준비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았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창업관련 연구가 이제는 본격적인 중단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창업분야 연구에서 횡단적인 접근방법으로는 창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상황요인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데 한계점이 노출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중단연구를 하지 못하고 횡단분석을 통해 측정된 자료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 기업들의 평균업력이 33개월로 비재무적성과가 마무리되고 재무적성과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재무성과로 분석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매출액 위주로 측정된 자료만으로 분석한 결과에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표본은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로 연구가 되었다. 최근 자료인 2013, 2014년 자료와 비교연구를 통해 창업생태계의 변화를 제시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향후 최근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반영하도록 하겠다.

## REFERENCE

- Anjan. R.(2005). Issue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Decision of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Calcutta*, 32(2), 73-84.
- An, K. J. & Chae, H. W. & Song, J. Y. & Cho, T. S. (2009). The Effects of Founder-CEO Attributes on Alliance Formation of Venture Startups: A Social Network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38(6), 1545-1572
- Bates, T.(1990). Entrepreneur Human Capital Inputs and Small Business Longev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2(4), 551-559
- Bird, B.(1993). Demographic Approaches to Entrepreneurship: The Role of Experience and Background, *Advance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1, 7-48.
- Cho, B. J.(1996).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 Integrated Model for Course Development and Curricular Direction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18(2), 157-184
- Cho, J. H. & Kim C. J.(2010). A Study on Performance Factors on the Small Busines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3(1), 127-144
- Choi, C. H.(2006). *Effects of Internal Service Quality on Internal Customers'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Tourist Hotels*, Master's Degree, The Graduate school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Choi, J. H.(2012). *The Influence of Quality Education in Entrepreneurship on the Would-be Entrepreneurs*, Master's Degree,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 Choi, J. Y.(2010). Characteristics of Network and Performance of Technology Based Start-ups, *The Korea Venture Management Review*, 13(4), 87-108
- Choi, Y. K.(2012). The Effect of TMT's Human and Social Capital on the Alliance with Business Group and the Performance of IT Ventures Listed in KOSDAQ,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10(8), 3165-3193
- Cooper, A. G., & Bruno, A. V.(1977). Success among High-Technology Firms, *Business Horizons*, 20(2). 16-22

- Cressy.(1994). *Staying with it : some fundamental determinants of Business Startup Longevity*, Working Paper. 17. CSME
- Davidsson, P.(2003). *The Domain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Some suggestion*, In J. Katz and D. Shepherd(Eds), *Cognitive Approaches to Entrepreneurship Research*, 6, Elsevier/JAI Press, Oxford. U.K., 315-372.
- Dollinger, S. M.(1995). Identity Style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4), 475-479
- Emenike.(2013). *The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Europe and Africa between 2004 - 2011*, ACADA
- Fairlie, R. W., & Robb, A. M.(2009). Gender Differences in Business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Owners Survey. *Small Business Economy* 33: 375-395
- Farmer, S. M., X. Yao & K. Kung-Mcintyre.(2011). The Behavioral Impact of Entrepreneur Identity Aspiration and Prior Entrepreneurial Experie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5(2), 245-273
- Greenhaus, J. G., G. A. Callanan, & V. M. Godshalk.(2009)., *Career management*(4th ed), SAGE Publication, Inc.
- Han, K. S.(2012). *An Empirical Study on the Nascent Start-up Motivations and Growth Intention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 Jeon, I. O.(2012). Established business start - up support Impact on The youth of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11), 103-114
- Jeong, S. H.(2001). *Influences of Empowerment and Leadership on Employee's Attitudes*, Master's Degree,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Jung, D. S.(2012). An Empirical Study on Business Start-up Education Preferences and Start-up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Business Review*, 76(-), 373-394
- Jung, J. H.(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Start-up Education Program on the Entrepreneurship and the Start-up and Management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 Kang, W. J., Lee, B. H., & Oh, W. G.(2012). The Effects of the Utilization of External Resources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Along the Stages of Growth in Korea Ventur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35-45
- Kang, Y. W. & Ha. G. S.(2012).,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Start-Up and Effect of Preparation of Small Business Start-up on Business Performance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0(9), 241-243
- Kim, B. J.(1990). *The influence of strategic adaptability to market dynamism on performance in Korean consumer packaged goods market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Kim, D. U., & Sung, C. S.(2013). Relationship Between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ial Nascent Behavior and intention of Social Responsibility-Focus on Meister School Student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5(1), 25-46.
- Kim, H.(2008). *A Study of the Influences of Public Support Programs on the Technology Innovation and Survival in the IT Small Enterprises(Policy Report 2008-07)*, Seou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Kim, J. J.(2014). *Impact of the Investment of Venture Capitals on the Performance of SMEs*,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Kim, J. M.(2013). Performance Analysis of Start-Up Investment Subsidies, *Journal of IT&A*, 10(1), 137-145
- Kim, J. Y., & Hahn, J. H.(2010). The Impact of CEO's Strategic Orientation on Ventures' Performance, *Management Education Review*, 60(-), 75-91
- Kim, Y. T. & Park, J. H.(2013). An Empirical Study on the Affecting Factors of Social Enterpris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Korea Business Review*, 78(-), 303-327
- KOSBI.(2013). *2013 Small & Middle Sized Enterprises(SMEs) Support Project Performance Analysis*,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79-80
- Lee, K. G., & Park, H. P.(2011). The Study of the Value Capability Index(CvI) for Successful Business, *Journal of Sustainability Research*, 2(3), 11-28.
- Lee, S. J., & Hwang, B. Y.(2010). Exploratory study on a psychological traits changes by entrepreneurship short-term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5(1), 19-44
- Lee, W. M., Kim, M. S. & Lim, E. K.(2012). A study of the Patent-related Activities affecting the Early Stage Company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3), 45-53
- Lee, Y. J., Jeong, K. C., Jang, B. Y., & Na, C. H..(2013)., *The Success Factor of Technology-based Startups and Supporting Policy (Policy Study 2013-07)*, Seou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Ma, Y. J., & Jang, S. H.(2009). The Influence of the Women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on the Managerial Performances,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0(12), 3856-3862.
- Nam, J. M., Chun, B. J. & Park, J. W.(2013). Success Factors of Start ups-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20(5), 27-43.
- Park, J. W., Choi, M. G., & Kim, Y. T.(2010).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Educational Performance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cused on Short Program of Local Government,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1(3), 1085-1094
- Park, S. J.(2010). *A study on determinants of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 venture*, Master's Degree,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Business Administration
- Quinoes, M. I., Ford, J. K. & Teachout, M. S.(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experience and job performance : A conceptual and eta-analytic review, *Personnel Psychology*, 48(4), 887-910.
- Ronstadt, R.(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 Journal of Small Business*, Summer, 7-23.
- Roure, J. B & R.H. Keeley.(1990). Predictors of Success in New Technology Based Ventu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 201-220
- Sequeira, J., S. L. Mueller, & J. E. McGee.(2007). The Influence of Social Ties and Self-Efficacy in Form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Motivating Nascent Behavior,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12(3), 275-293.
- Sexton, D, & N. Rowman.(1985). The Entrepreneur : A Capable Executive and Mo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 129-140.
- Shin, Y. S.(2013). *A study on the affecting factors of business incubators to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entrepreneurial companies*, Master's Degree, Chung-Ang University.
- Sturt, R., & Abetti, P. A.(1987). Start-up ventures: Towards the prediction of init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215-230.
- Timmons, J. A.(2000).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2000(5th ed)*, Homewood, IL: Irwin.
- Vesper, K. H.(1980). *New Venture Strategie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Vesper, K., H., & McMullan, W. E.(1988). Entrepreneurship: Today Courses, Tomorrow Degre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3(1), pp.7-13
- Yoo, T. W.(2010).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on Technology and Management Performances in INNO-BIZ Companies*,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Yoon, B. S.(2004).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Korea Business Review*, 17(2), 89-110.
- Yoon, M. S.(2004). The Impact of the Characteristics of Incubating Organization and Entrepreneur's Experience on New Venture Performance,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5-106
- Yu, Y. H. & Yang, D, W.(2008). An Empirical Study of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Career Orientation, Social & Cultural Perception, and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s,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1(5), 2347-2368
- Zhu, X. J.(2013).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on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and management performance*,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 An Empirical Study on Influence of Venture Prepar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of Initial Venture Foundation: Focused on The Effect of Controlling The Period of Venture Preparation

Oh, jaiwoo\*  
Lee, Donghyung\*\*  
Kang, Jinkyu\*\*\*

## Abstract

Although recent policies and regulations in Korea strongly advocate and encourage cultivation of venture foundations, studies on venture foundation and success are very limited and often primarily focus on entrepreneurship or individual quality as a venture founder in addition to such studies' validity in question. Therefore, this study primarily focuses on venture preparation process which is subject to venture founder's effort to verify the policy effect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enture prepar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Major goal of this study is to reduce social cost of venture failure by suggesting systematic policy support for venture foundations and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ollowing variables: first, venture prepara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second, venture preparation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third, venture prepar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400 initial venture foundations less than 5 years are selected from KISED(Korea Institute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trend analysis to carry out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 18.0. To organize the data features, frequency analysis as well as descriptive statistics are performed to verify the hypothesis. As a result, sub-factors in measurement of venture preparation which are venture education period, venture benefit, and experience of incubating organization a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Likewise, sub-factors in measur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which are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a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To validate interactive effect, venture preparation period is selected as control variable to perform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 verifies that venture benefit has positive influence on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while venture education period has positive influence on non-financial influence and experience of incubating organization has negative influence on non-financial performance without influence on financial performance. In addition, interaction of venture preparation period has positive influence solely between venture benefit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Through this study, appropriate supporting plans depending on the level of venture preparation can be derived to improve business performance of initial venture foundations for policy designer of venture support, and quality rather than quantity improvement of venture businesses is possible through investigation of structural issues of individual venture businesses. Ultimately, this study suggests venture founders to determine whether to focus on venture preparation process or to start a venture business.

*Key Words : venture preparation, initial venture foundation, venture preparation period, venture education period, experience of incubating organization, venture benefit*

---

\* First Author : Oh, Jaiwoo, Hanbat National University

\*\* Co-author : Lee Donghyung, Hanbat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Corresponding Author : Kang Jinkyu, Hanbat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